

# 대구광역시

## 경북 수협위판장 위생관리 엉망진창...

21개 중 11개 저온·위생시설 無 전국 수협 위판장 215곳 가운데 절반 6대저온·위생시설 없이 운영

전국 수협위판장 관리 가망이다. 전국 수협 위판장 215곳 중 절반이 '6대저온·위생 시설' 없기 때문이다.



경북은 21개 중 11개, 52.4%가 저온·위생 시설없이 운영되고있다.

이 사실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수산물 위판장별 시설 현황 분석에서 드러났다.

현황분석에서 수협이 운영하는 전국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6대 저온·위생 시설이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이 125개에 달했다.

위생 사각지대인 수협 위판장의 현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처럼 번지고있다.

전국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저온 저장고 △냉동(동결)시설 △냉장(냉동)시설 △세척 시설 △저빙 시설 △오·폐수 시설 등 6대 저온·위생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19개(8.8%)뿐이었다.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6대 저온·위생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125개(5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개 설치된 곳이 23개(10.7%), 2개 설치된 곳이 16개(7.4%)로 4분의 3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판장이 있는 경남 도는 55개 위판장 가운데 36개(65.5%)가 6대 저온·위생시설을 1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국 두 번째인 전남 역시 51개 위판장

중 29개(56.9%)에 6대 저온·위생시설이 1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위판장 20여 개가 있는 강원 28개 중 20개, 71.4%, 충남 25개 중 18개, 72%, 경북 21개 중 11개, 52.4%나 됐다.

반면 제주도는 10개 위판장 중 절반인 5개 위판장이 6대 저온·위생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위판장 2개는 저온·위생시설 4개를, 위판장 1개는 저온·위생시설 3개를 보유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위판장 현대화가 가장 잘 된 도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위판장 내부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수산물의 부패를 유발하는 식중독 세균과 저온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과 효소가 활발하게 발육·작용, 0도 이하로 내려갈 때 세균이나 효소가 일부만 작용하거나 특별한 균만 발육한다.

일본은 어획물이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단계에서 각종 세균이나 효소가 발육·작용해 부패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노후 위판장을 대상으로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 위판장은 2019년 이후 총 15개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위판장 내에서 온도와 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활어가 폐사하거나, 식중독 세균이나 비브리오패균 등이 번식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현재 연간 4건씩 추진하고 있는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위판장 위생 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판장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성황 (제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지난 6일 한 달여간의 전시 여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대구의 현대 미술 역사를 계승, 더 나아가 현대미술을 선도할 수 있는 예술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사진=달성군 제공)

## 도의회, "홍준표 TK신공항 플랜B '어거지' ...

군위군 유치 신청 철회 차순위 후보지 군위 우보 단독 유치 법적으로 불가

경북도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독소를 날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한다는게 이 유다.

박규탁 도의회 수석대변인은 7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플랜B는 대구와 경북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년간 함께 추진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 단독 유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TK신공항 이전 건설 문제를 해결해 2030년 순조롭게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도의회의 톤 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애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 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폐쓰기'로 치부, 군위를 내어준 경북의 톤 큰 결단을 비웃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이미 폐기된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를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 메시지를 날렸다.

때문에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경북도의회 박규탁 수석대변인은 7일 의회 기자회견에서 TK신공항 건설과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203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물류 수용성이 높고 구미 국가산단과 연결을 위해 별도의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없으며, 대구와 구미, 포항의 주요 산업이나 물류 거점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신공항 부지 동쪽 지역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반면 대구시는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다"며 의성군 등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용 기자

## 비수도권 '암' 환자 너무도 서럽다...

수술받는데 한 달 넘게 대기

비수도권 암환자들이 서럽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암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진단 후 한 달 뒤 예나 수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을 진단 받고 수술까지 1개월 이상 대기한 환자는 2014년 28.1%에서 2023년 36.8%, 올해는 4월 기준 37.6%다.

진단 1개월 이후 수술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은 2014년 28%에서 2023년 34%, 올해 4월 기준 33.7%다. 조여은 기자

## "중장년 은퇴자 대한민국 별천지 영양으로" ...

도, '4060 K-산촌 트림' 사업 추진 2027년까지 120억투자 영양군 일일면 일대 소득형 모델인 임대형 단지 조성

경북도는 7일 중장년 은퇴자의 산촌 생활 체험과 안정적 정착을 돕는 '4060 K-산촌 트림' 사업을 추진한다.

영양지역에 소득형, 자연형, 웰니스형 3개 마을을 조성해 중장년 은퇴자에게 제공한다.

은퇴자들은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임대료만 내고 산촌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영양군 일일면 일대 소득형 모델인 임대형 산촌스마트팜혁신단지 조성한다.

단지 내 모듈러 주택 20동을 건설, 입산 물로 소득을 희망하는 중장년 귀산촌 예정자 20명에게 산나물을 재배하는 스마트

팜과 산속자연인 마을 주택을 최대 5년간 임대한다.

시설제비 임업인과 협업을 귀산촌 예정자들에게 산채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스마트팜에 난방열을 공급한다.

웰니스 모델 사업 일환으로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 숲을 활용해 단기 체류 숙박과 공유형 사무공간을 갖춘 '자작누리 명품 산촌'도 구축한다.

도시와 산촌 생활을 함께 추구하는 이들에게 6개월에서 1년간 단기 체류할 수 있는 공간과 산림휴양,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영양군 일일면이 사업지로 선정된 것은 산림 면적이 80%가 넘고, 국가 명품 숲에 선정된 자작나무 숲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어수리, 천궁 등 전국 최대 산나물 생산지인 이점이 작용했다. 권용동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여행안내 054-791-1717



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오후 하이코 3층에서 열리는 경북도 자활한마당 행사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8일 오전 부남면 대전3리 경로당에서 열리는 '2024 행복마을 만들기'에 참석한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골독자들 결으로!

제3회 수비능이버섯축제. 자연/의/보/약/을/내/몸/에. 10.12.(토) - 13(일) 수비면 소재지(수비체육공원). 능이·송이버섯 판매장터/ 먹거리장터/ 축하공연 등. 능이버섯이란? 효능이 표피를 덮았기때문에 효소장이라 부르며, 독특한 향이 강해 송이버섯보다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다. 능이버섯 달인 물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항암효과 및 면역력 강화 유효성분을 감소에 도움이 된다. 주최/주관: 영양군, UFTC 영양축제관광재단, 후원: 수비면 기관 및 자생단체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2

## 道,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강석희 前대사 임명

이철우 경북지사는 7일 도청에서 강석희 전 아프리카연합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를 신임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했다. 강 대사는 다년간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희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1971년 상주에서 태어나 상주교과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미

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학박사를 졸업했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1993년 외무부에서 외무사무관으로 외교 경력을 시작, 국내외에서 다양한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對美 수출 1억弗 늘려라” 특명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12월 예정 정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차질 우려 10월말까지 해결하라 지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對美 수출 1억弗로 늘려라고 특명을 내렸다.

홍 시장은 7일 산적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참가한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대구 식품공동관 및 무역사절단 운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대구식품 D-푸드 대미(對美) 수출 1억 달러를 목표로 식품업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은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취득·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담으로 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각 실국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열악한 소방공무원 급식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어떤 이유론 받아

들이기 어렵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급식 품질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쿠키축제는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지나갔다. 앞으로도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공간건설단은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차질이 우려된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민선 8기 출범 후, 37개사 9조 2000억 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 체결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국도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듬어야 될지 전 직원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보건복지국을 중심으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복지 흡혈·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각 실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 ‘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 대구 학생 99명 출전!

14개 종목 참가 각 시도 대표들과 기량 힘껏 겨뤘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상업계고 99명의 학생이 대구대표로 참가한다.

대회는 7-9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다.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관한다.

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분야 4개 종목에 총 1540명의 학생들이 각 시·도를 대표 참가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 열린 ‘제14회 대구시 상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대구제일여상, 대구·경북여상, 대구보건·상서·대구관광고 등 상업계 특성화고 6개교, 학생 99명이 경진 분야 10개 종목(68명)과 경연 분야 4개 종목(41명)에 참가한다.

대구선수단이 참가하는 분야는 △회계·창업 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 금융·호텔식품서비스(조주)·세무실무, 취업설계프리젠테이션 등 10개 경진종목 △창업동아리엑스포, 동아리콘서트, 경제골든벨, 대회 홍보크리에이터 등 4개 경연종목이다.

7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제주여자상업고 △제주중앙고 △제주한라체육관 △제주북한체육관 등 4개 경진장에서 분산, 각종 특별대회를 한다.

대회 마지막 날 9일 제주중앙고에서 폐회식을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이 대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열정을 가지고 훈련하는 모습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공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마음껏 발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 경북교육청,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전수조사

아동학대 Zero 성범죄 Zero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앞장



경북교육청은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전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대상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무직원이다.

조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무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172교에서 근무하는 730여 명의 사무직원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은 이들이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운영하는지를 확인한다.

점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본인 동의 없이 일괄 조사가 가능하다. 전력 조화는 10월 중으로 완료되며, 결과는 교육부에 제출된다.

경북교육청은 점검 결과 범죄 전력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대해 해당 기관에서의 근무 제한을 요구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매년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사를 시행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경북교육농장... 농촌 체험관광 선구자

도심 속 힐링의 장 2024 농촌체험교육 힐링 페스티벌 개최

경북농업기술원이 ‘2024 농촌 체험교육 힐링 페스티벌’을 연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도시민들에게 경북의 교육농장이 가진 고유한 농업·농촌 가치를 홍보하고 농촌교육농장에 접근할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민의 참여 확대와 향후 지속적 농업 방문을 끌어내는 홍보 행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8-9일까지 이틀간 대구삼성초점 퍼스 야외광장에서 열린데 도심 속에서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쉼(休)의 가치를 알린다.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교육과 치유의 가치를 확산, 도내 농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꾀한다.

행사 체험객은 14개 시군 30개 농촌교육농장에서 제공하는 농업·농촌 체험행사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종류는 △지역농산물 활용 음식 만들기(사과청 만들기, 부추 피클 만들기) △농심 함양 체험(반려식물 심기, 채소 심기) △농촌자원 활용 소품 만들기(나무 악기 만들기, 참외모형 만들기) 등이 있다.

체험행사에서 학생들은 학년별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활동을 경험,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일상 속 여유를 통해 심신을 안정화하고 치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농촌교육농장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 초·중·고의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경북 도내 21개 시군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내 각급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지도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농촌교육농장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동물 교감 체험, 힐링 음식 만들기, 도자기 체험, 원예 치료 등 분야가 다양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성용 기자

## 대전1동 '청소년플로킹&네프론 교육

대구 북구 대전1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청소년들은 지난 5일 대전1동 관내에서 플로킹 및 네프론 교육을 했다.

대전1동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들은 청소년 20여명과 함께 골목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관내에 설치된 네프론을 통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 교육을 했다.

채부황 대전1동 우리마을교육나눔위원회 위원장은 “관내 청소년들이 플로킹을 통해 분리수

거와 종량제봉투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네프론을 통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명자 대전1동장은 “플로킹과 네프론 교육을 준비하느라 애쓰는 마을교육나눔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관내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생활속에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iM뱅크, ‘창립 57주년’ iM뱅크 BC카드로 함께해요

BC카드 캐시백 11월30일까지 단독 진행 생활의 업종 2천원 목돈 소비업종 5만원 캐시백... 마이태그 행사 참여 후 적용

iM뱅크는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생활 편의 업종 및 목돈 지출 분야에서 일정 금액 결제 시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iM뱅크 BC카드로 함께해요’ 행사를 한다.

창립기념일인 7-11월30일까지 약 두달여간 iM뱅크 BC카드 단독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카페와 배달업종을 비롯해 약국, 철도 등 자주 이용하는 생활 편의 소비분야

를 비롯해 목돈이 지출되는 병원과 백화점, 보험업계에 걸쳐 적용된다.

생활 편의 업종의 경우 스타벅스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과 약국, 철도업종(코레일/SRT)의 경우 3만원 이상 iM뱅크(아이엠뱅크) 개인 BC카드 결제 시 2000원 캐시백이 적용된다.

목돈 소비업종의 경우 적용되는 가맹점은 병의원과 백화점, 손해보험으로 10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5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BC카드 앱에서 ‘마이태그’ 이벤트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적용 업종 및 해당 되는 특정한 시간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은 마이태그 내



유의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iM뱅크는 “10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고객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iM뱅크(아이엠뱅크) BC카드 단독 캐시백 이벤트를 하게 됐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명주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회장 손경찬 |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가정학습지 인기

경주보건소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학습 프로그램이 인기다. 프로그램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 질환이 4위 등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보건소 내 전문인력과 건강리더를 활용

한 고혈압·당뇨병 가정학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경주시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통합지원센터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등 다분야 간 협업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가정학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 신라문화제 11일 화려하게 막 오른다

신라복판타지패션쇼 올해 첫선 새로운 경주축제관광 벨트구축

경주 대표 문화예술 축제 제51회 신라문화제(11~13일)가 막 오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리단길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령원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봉황대로 퍼져나가게 해 '황리단길-대령원-중심상가'를 잇는 새로운 축제관광 벨트를 만들어 낸

다는 게 올해 신라문화제 전략이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이번 신라문화제에 반드시 와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가득 담아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예술제와 축제로 이원화된 지 3년째를 맞이하는 해로 시민주도형 및 안전한 행사,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축제의 품격을 끌어 올렸다. 행사 첫날 11일 개막식은 대령원에서 열렸다. 월정교 수상 객석에서 진행했던 화백제전을

대신해 신라복판타지 패션쇼를 선보인다. 패션쇼는 신라 이야기를 담은 슈퍼모델 100인의 신라복쇼와 함께 미디어파사드, 불꽃 및 500대 드론 쇼 등의 멀티미디어쇼로 진행된다. 감성 낭만 아시아장인 '달빛낭장'은 봉황대 광장에 이어 금관총 일원에 푸드트럭존을 신설해 스마트 QR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떡볶이, 어묵 등 간단한 요깃거리가 가능한 분식류부터 부대찌개, 제육볶음 등 입맛을 자극할 식사류, 케밥과 양꼬치 등 글로벌한 먹거리가

지 선보인다. 실크로드페스타는 대령원 공간까지 확장해 전통성과 대중성을 가미한 30개 팀이 다채롭고 화려한 공연을 70회 제공한다.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화랑합창페스타는 요즘 합창선에서 가장 핫한 비와이, 비오, 자이언티 등 8팀을 섭외했다. 올해는 봉황대 법장사 뒤편에 ESG존을 마련해 친환경 체험 공간과 반려견 동반 구역을 신설했다.

친환경 공간인 '그린어스 존'은 문정현 뒤 잔디밭에 마련돼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체험부터 멸종위기 동물을 캐릭터로 한 에코백 제작까지 다양한 체험을 진행한다. 시는 원활한 신라문화제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날짜별, 연령별, 시간대별 등의 방문객 빅데이터를 객관적 분석해 안전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교통통제, 비상 대피로, 안전페스 설치 등에도 적극 활용한다.

2024 경주국제마라톤, 역대 최대 1만 2000명 참가

케냐 선수들 우승 후보 국내 강자 김홍록 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일보 2024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1만 2000여 명의 국내외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일 경주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북도, 경주시,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엘리트 선수 45명(국제 남자부 19명, 국내부 26명)과 마스터즈 1만 2000명(스플코스 △하프코스 △10km △5km)이 참가해 힘찬 레이스를 펼친다. 대회는 최근 러닝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이 3000여 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 대회부터 출발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시간 앞당겨 8시로 조정해 관광객 유입이 많은 시간대를 피했다. 황리단길 주변 시내권과 보문 진입 경로를 빠르게 재개통함으로써 마라톤 참가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종편 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주시의 풍경과 대령원, 첨성대, 오름, 반월성, 월정교,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분황사 등 대표적인 문화유적지가 전국에 홍보된다. 대회에서는 케냐 출신의 레이먼드 킵츠바 초계(개인 최고 기록 2:07:36)와 더글라스 킵사나이 체비이(개인 최고 기록 2:06:31)가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선수로는 2024 서울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국내 남자부 1위인 김홍록 선수(소속: 건국대) 등이 선전을 펼친다. 시는 대회 진행을 위해 교통 통제와 주차 관리 안내 공무원, 경찰 인력, 자원봉사자, 구급 차량 및 의료진, 대회 지원 요원 등 여러 기관과 많은 인력을 동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가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라톤 코스 주요 지점에 풍물 단체를 섭외해 거리 응원을 펼치며 대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마라톤 전 구간에 환경 정비를 실시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회가 매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제 대회의 성공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정상 회의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지난 5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제20회 사랑나눔 건강걷기 및 건강체험 한마당 성료

사랑나눔 건강걷기 및 건강체험 한마당 성료

황성공원서 잠수교 지나 장군교까지 5km 함께 걷기

제20회 사랑나눔 건강걷기 및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가 황성공원에 종료됐다. 행사는 지난 5일 경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보건소, 경주시 청년연합회,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식전 공연으로 황오동 풍물단의 풍물 공연, 경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사랑 고고장구팀의 고고장구 공연, 월성동 건강마을 위원회 훌날루 동아리의 라인댄스 공연 등으로 재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상쾌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황성공원 시민운동장 앞 광장에서 출발해 잠수교를 거쳐 반환정인 장군교를 돌아오는 약 5km 구간을 걸으며 건강한 걷기 운동을 즐겼다. 덤 행사인 건강체험 한마당에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비만·신체활동·절주 체험관, 함께 가 치 걷는 행복! 지체장애 체험관, 알아가요 치매 예방! 함께해요 치매극복! 등 14개의 건강 체험관이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 프로그램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는 걷기만큼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 없다. 이번 행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천북 농악단, 농악경연대회 장려상

천북농악단이 제18회 경주시 농악경연대회 무형유산 풍류한마당 대회에 출전, 장려상을 받았다. 대회는 지난 4일 경주시 봉황대 일대에서 열렸다. 화창하고 청명한 가을 아래, 천북 농악단은 첫 대회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천북농악단은 2024년 1월 새롭게 창단된 악단이다.

단원들은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며 우리의 전통가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풍물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회에서 꿩고리, 징, 장구, 북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15분 동안 흥겨운 풍물놀이를 펼쳤다. 단원들은 미소를 띤 밝은 표정으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천북농악단은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앞으로 천북 경로잔치와 시민체전 등 다양한 행사와 대회에 참가하여 활발히 활동한다.

Advertisement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APEC logo, the text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and promotional messages: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and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The background is a colorful abstract graphic.

### 포항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



제12회 목은 문화제 개최

영덕군 출신의 고려 말 정치가이자 대문호인 목은 이색 선생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12회 목은 문화제'가 지난 4, 5일 이틀간 열렸다.

행사는 4일 고유제와 5일 문화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고유제는 목은이색기념관 옆 선생의 생가터에서 열려 목은 선생의 삶과 뜻을 군민극단의 연극과 국악 민요공연으로 표현했다.

한산이씨대종회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평생 후학양성에 힘 쏟은 목은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덕고등학교 축구부와 강구중학교, 강구초등학교 축구부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영양군, 정신건강 홍보

영양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7~18일까지 2주간 영양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홍보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주제는 "마주해요-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이다.

군은 정신건강의 인식 개선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영양군민체육대회(10월15일) 정신건강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군민의 마음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보건소 1층에서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상담 등 정신건강홍보관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권윤홍 기자



청송, '2024 힐링파크' 개최

청송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2024 치매보듬마을 힐링파크'를 청송지원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어르신들의 야외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치매 OX퀴즈, 치매박스, 난센스 퀴즈 등 다양한 두뇌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2024' 성공신화 쓴다

행장 찾은 관광객 환호작약  
4일간 1만5000명 구름인파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2024'가 군민들의 '환호작약'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지난 3~6일까지 4일간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열렸다.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2024'를 찾은 방문객은 1만5000명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 3번째 열리는 웰니스페스타를 계기로 앞으로 영덕이 휴양과 치유의 웰니스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김 군수는 "영덕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K-웰니스 산업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웰니스 산업 국제 박람회'를 개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도 텔리데 부총장, 주한 인도부대사 등 해외 주요인사들의 참여와 인도 आयुष्मान (AYUSH)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오는 등 명실공히 국제행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행사가 됐다.

지역별 방문자는 영덕군 39.58%로 가장 많다. 포항시 22.3%, 대구시, 안동시 등 방문자의 60%가 관외 지역에서 방문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체험객들은 "한방진료와 처음 들어보는 आयुष्मान (AYUSH)을 체험했다. 이들은 각종 진단을 통해 심신의 상태를 알 수



사진은 2024 영덕 국제웰니스페스타 행사 모습. (사진=영덕군 제공)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체험 후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체험부스에 모바일 접속시스템을 적용해 대기순서를 카톡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다.

대기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공연과 휴게존, 물리치료존을 운영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영덕군민 자원봉사자 외에도 영연성운 부산영산대학교 웰니스학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대

거 참여해 더욱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해외에서 온 주요 VIP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영덕군 웰니스 페스타 발전에 관한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 결과 전 세계에 80여개 웰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인도 기업 지바 आयुष्मान (AYUSH)과 MOU를 맺고 영덕군에 지바 웰니스센터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군수는 체험전과 동시에 진행된 웰니스라이

프전의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에서는 인도 आयुष्मान (AYUSH)가 ㈜에너지사이언스가 개발한 생체 에너지와 신체 균형도 측정 장비인 '오라소마'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혀 이후 후속 협상과 공동 연구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디지털웰니스산업협회(회장 안진훈)와 독일 크나이프 치료사(대구대학교 조록환 박사) 간에 지속적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성용 기자

## 포항시, 2025년 도시 경쟁력 확실하게 잡는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7~23일까지 국별 5차례 열려

포항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규 핵심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나섰다.

보고회는 일자리경제국,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부를 시작으로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날 23일까지 진행된다.

국별 보고회가 끝난 후 이강덕 시장 주재로 내년도 정책 여건 및 세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올해 업무보고는 자료 작성 시에 각 부서에서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개념도를 만들어 보는 등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꾀했다.

시정에 접목 가능한 AI·빅데이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첨단지식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AI 혁신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국은 △단계별 기업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업친화도시 조성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AI·디지털 생태계 조성 △신성장 미래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주도 소상공인·청년·대학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정했다.

주요 과제로 △규제자유특구 20 및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 병원 설립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바이오특화단지 후속 사업 추진 △디지털 혁신 Tech-HUB 구축 △AI 가속기센터 민간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전국 최초 민간산생협력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청년

친화도시 지정 △2025 APEC 정상회의 활용 해외 투자유치 등을 집중 추진한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는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글로벌 관광매력도시 조성 △글로벌 중심도시 포항, K-마이스 산업 허브 도약 △마이스 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정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는 △AI 기반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글로벌 페스티벌 시티 포항 △호미반도 명품 관광특구 조성 △체류형 생활 관광 허브, 고향올래 사업추진 △[제]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세계녹색성장포럼(WGGF) △유엔기후변화 글로벌 혁신허브(UGIH) S.I.W. 포함 개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1단계 건립 및 2단계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글로벌 관광 매력 도시 조성에 힘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발굴된 사업들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생태계를 조성,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포항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18회 청송사과축제...온라인도 함께



청송군은 지난 1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온라인 축제를 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온라인 축제를 통해 사과 축제를 먼저 체험하고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 다채로운 볼·먹·즐길거리로 오감만족이 가능한 축제를 열심히 준비 중이니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제18회 청송사과 온라인 축제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소통을 위해 시작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한 접근성 강화와 지속적인 인기로 반영, 올해도 진행된다.

온라인 축제는 대면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체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현장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윤병문 기자

## 울진서 일본뇌염 환자 '첫' 발생

예방 홍보 방역활동 총력...  
뇌염 진행 사망률 20~30%

울진군에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일본뇌염 환자는 관내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10월 10일 몸살 증상을 시작으로 신경계 증상이 있어 12일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일본뇌염 양성으로 확인, 치료중이다. 때문에 군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관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

생, 예방을 위한 홍보와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는 9~10월 80%의 환자가 집중,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에 무기력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경직, 경련, 마비 등이 나타나며 사망률은 20~30%이다.

군은 연무 및 분무 방역을 강화, 제집기를 설치, 모기감시를 실시, 채집된 모기는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으로 송부, 감염 조사를 한다.

일본뇌염 위험 지역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개점 및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한 자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예방수칙으로는 △불가피한 야간외출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기피제 및 팔토시 사용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실천 △건물 내 텐트 등으로 모기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방충망 정비와 모기장 사용을 권고 △실내에서 살충제 적절히 사용 등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인 만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울진, 아토피 예방 인형극



울진군이 마련한 '뚝딱이의 아토피 예방작전' 인형극 공연이 4회 운영된다.

인형극은 7, 8일까지 이틀간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학생 및 교직원 282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알레르기 질환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일상생활과 학업 등에 지장을 초래,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 질환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만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가을 향기...울릉 에메랄드빛 바다 속으로

울릉서 펼쳐지는 웰니스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프트' 막올라

울릉군이 '웰니스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프트 행사를 연다.

행사는 오는 10, 11일 울릉도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치유한다.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프트'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울릉도 일대(알봉치유정원, 통구미항(거북바위), 석포출출전망대, 라페루즈 리조트)을 배경

으로 요가와 사운드스케이프, 훌라, 소마스틱, 애니멀플로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웰니스 페스티벌로, 울릉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 최대 웰니스 페스티벌 운영사인 '원더러스트 코리아'가 울릉군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제임스신, TJCHOE, 최민호, 한효진, 유기, 미지수 등의 유명 강사들이 참여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행사를 빛낼 수 있는 가수공연을 한다. 정윤환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경산 가을 음악회 개최

경산시 하양읍은 지난 5일 대부 잠수교 옆 하양경관농업단지 일원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읍 개통을 기념하는 '2024 하양읍 주민화합 가을 코스모스 음악회'를 개최했다.

하양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코스모스 음악회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울렛 유치와 도시철도 1호선 하양읍 개통을 축하하고, 하양읍의 발전을 기념하며 주민 소통과 문화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해진 하양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음악회를 통해 읍민 여러분께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기업, 장학금 기탁

지난 7일 에스아이이씨가 300만원, ㈜제이원이 2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에스아이이씨는 2008년 도남공단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및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감속기를 조립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다.

2013년 영천시 우수기업 및 2023년 영천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지역기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0만원을 기탁했다.

강재윤 대표는 "지역의 미래는 훌륭한 지역 인재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천시장학회 장학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그리는 우수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전 15만명 이상 방문해  
세계유산적 가치 향유 계기  
지역활성화 경제 활력 기대

고령군은 지난달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계유산축전을 즐기기 위해 1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고령을 찾는 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작년 9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등재1주년을 기념해, '잊혀진 가야명명, 가야고분군으로 기억되다'라는 주제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날인 9월 23일 열린 '등재1주년 기념식'과 '금림왕릉 발굴조사 고유제'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등 많은 내빈들과 500여 명의 지역주민 등 방문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역사토크강의인 '고령으로 가자, 토크콘서트'는 현장접수가 마감되는 등 흥행을 이어갔는데, 큰 별별 최태성, 역사독립군 배기성, 그레 서경석이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음식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각종 요리를 1500년 전 대가야 왕과 가야금공연을 들으면 즐길 수 있는 '대가야 향연'은 참석자들의 큰 만족과 기쁨을 선사했고, 축전 막바지에 열린 '가야금 대병창'은 7개 가야고분군 각 지역에서 선발된 70명의 가야금연주자로 구성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대가야의 꿈을 노래했다.

이외에도 각종 체험을 비롯한 어린이해설, 미디

어파사드, 통나무편선 숙박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세계유산축전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세계유산 가야고분군과 그 중심에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향유하고 나아가 일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024 세계유산축전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온전히 집중하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즐거운 기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고령군은 우리나라 대표 세계유산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제17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 성황리 마무리

주요 내빈 5.9km 코스 참가  
하프남자부 신정식씨 우승

청도군은 6일 공설운동장에서 '제17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17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는 청도마라톤 클럽을 비롯해 전국의 마라톤 단체와 동호인, 지역민 약 3천여 명이 참가신청을 해 오전 10시 하프코스를 시작으로 5분 간격으로 10km, 5.9km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이후혁 대구일보 사장, 차용대 청도군체육회장 등 주요내빈이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김하수 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5.9km 마라톤코스에 직접 참가해 군민과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이며 행복건강 실천을 통한 건강청도 만들기를 실천했다.

선수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해 각코스를 완주한 결과 하프남자부에서는 신정식 씨가 1시간 14분 35초, 여자부에서는 류승희씨가 1시간 21분 9초의 기록으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10km 남자부에서는 박현준씨가 32분 32초, 여자부에서는 정순연씨가 38분 3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5.9km 남자부에서는 전영환씨가,

여자부에서는 전에서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제17회 청도반시 전국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한 청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문화예술제 3만여명 관람객 찾아

전국 풍물·난타 경연대회  
부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천시는 지난 3-5일까지 3일간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50회 영천문화예술제가 3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천의 대표 가을 축제이자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인 영천문화예술제는 개최 5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첫날인 3일은 전국 풍물·난타 경연대회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읍·면·동 줄다리기와 투호, 제기차기 대항전이 이어져 행사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경기 결과, 줄다리기는 임고면이 1등, 중앙동이 2등, 동부동이 3등, 투호와 제기차기는 북안면이 1등, 중앙동이 2등, 신녕면이 3등을 각각 차지했다.

첫날 저녁에 열린 개막식에는 최기문 시장과 이만희 국회의원, 김선태 시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영천문화예술제 개최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했다. 둘째 날인 4일에 열린 읍·면·동 장기자랑 대회에서는 남부동이 최우수상, 신녕면이 우수상, 금호읍이 장려상, 동부동이 인기상을 거머쥐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왕평가요제가 열려 본진출자 10명의 무대가 펼쳐진 가운데, 대상은 '망부석'을 부른 한아름 씨, 금상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이효정 씨, 은상 김명민 씨, 동상 조유진 씨, 장려상 그룹 온스, 인기상 김순연 씨, 참가상 김선진·김아연·도유마·허시안 씨가 차지했다. 최은하 기자

성주군 가천면, 연도변 대청소 실시

가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7일 도로변과 농로 등 주요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협의회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해솔예원의집 장애우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삼삼오오 조를 지어 장갑을 낀 손에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고 활

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들고 있는 봉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봉사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호원 가천면장은 "가을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탄소중립과 우리 마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재훈 기자

청도경찰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

청도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관내 전 지역경찰관서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소통·화합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일상 청도서장은 현재 경찰이 추진하는 중요 치안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직원들의 애로·건의사

향을 청취, 주요 업무추진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관내 실종추출인 수색에 적극 노력해 준 금천차울방범대장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조여은 기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 [대면] 전국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을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4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고향사랑e음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의성



#### 영주여고, 자율형 공립 추진

영주시는 7일 영주여자고등학교와 지역혁신형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제도로 선정 시 교육과정과 학사 일정, 교육방법 등을 학교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 가능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총 2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고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지역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공교육 기관의 교육력 개선 △지역사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봉화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봉화군은 지난 5일 봉화군민회관에서 제28회 봉화송이축제를 맞이해 '제23회 봉화군 어린이집 연합운동회'를 개최했다.

봉화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10개 어린이집의 원아, 학부모,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하늘 달리기, 깃발뽑기,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운동회 프로그램과 에어바운스, 범퍼카 놀이 등 평소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 부스들이 준비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출생률이 줄어드는 시대에 부모도, 우리 미래 주역인 아이들도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슈퍼푸드 ‘마늘’... 韓대표 축제로 육성”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3일간 10만명 이상 방문  
생산자 직거래 장터 운영

의성군은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가 10월 4일부터 3일간 의성읍 시가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최된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는 조선 중종 의성읍 치선리(선암부락)에 경주 최씨와 김해 김씨 두 성씨가 터전을 잡고 마늘 농사를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의성마늘, 선암부락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의성특산물물을 주제로 한 마늘요리 경연대회 △의성 슈퍼스타 선발대회를 통한 마늘 스타 발굴 프로그램 △지역 대표 춤꾼들의 화려한 댄스대결을 펼친 의성마늘 댄스퍼former △지역예술인의 솜씨를 선보인 지역예술인 한마당 △아시아의 낭만을 채워준 버스킹무대 우리마늘을 위한 밤 △의성마늘경매를 통한 지역장학금 기탁 △마늘을 소재로 한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찾아라! 최강마늘꾼(여기, 거기, 뿔기)의 의성을 전역에서 펼쳐졌다.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일식왕자 정호영셰프 및 미쉐린스타 유현수 셰프와 함께하는 KBS2 TV 사장님끼리는 당나귀귀 방송촬영 △의성군수배전



의성군은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가 10월 4일(금)부터 3일간 의성읍 시가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드론 스포츠 대회 △제38회 의성문화제 △제2회 성남공장 페스티벌 △제28회 의성군민의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특히 행사장내에는 의성군 상생협력 기업인 명랑핫도그의 신메뉴 ‘의성마늘 0크런치 핫도그’, 원할머니 보쌈(마늘족발, 수육), 의성롯데마늘햄(3종마늘햄시리즈) 무료시식 행사도 같이 진행

되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무척 높았으며, 그 외 구운마늘 및 의성마늘 짜장밥 무료 시식코너를 운영한 국제로타리 3630지구 의성로타리클럽 등 여러 단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울러 진행되었다.

메인행사장내 마늘생산자 연합회 협조하에 생산자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저렴하게 명품 의성마늘과 종자용 마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

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의성 마늘의 우수성을 또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의성마늘의 기원을 널리 알리며 대한민국 대표 슈퍼푸드인 마늘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의성 대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국내 대표 축제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한-태’ 합작 스마트폰영화제 개막작 만든다

실화 바탕 소재 영화 제작  
봉만대 예술총감독 연출

예천군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이하 ‘영화제’)가 개최 이후 처음으로 공식 개막작을 한-태 합작으로 제작한다.

이번 개막작은 지난 6월 한국을 관광하던 중 뇌사상태에 빠진 태국인 푸리마 령통쿨(여성, 35)이 장기기증으로 한국인 5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

한실화를 모티브로한 ‘삼강’이다. 영화제 측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을 시작했으며, 봉만대 예술총감독이 연출을 맡고, 남자 주연은 흥보대사인 배우 이현진, 여자 주연은 태국 배우 민트가 맡아 예천과 태국 방콕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봉만대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스마트폰이라는 기동성 있는 촬영시스템을 통해 제작되는 최초의 해외 합작 영화로서, 영화제의 특색을 살린 개막작으로 제작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막작 ‘삼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메가박스 경북도청점에서 제작 발표회와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패밀리파크 특설 무대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식전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되며, 내빈, 영화인, 지역민 누구나 포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출품 감독들이 모두 참석하고, 현장에서 수상 순위가 발표되며, 총상금 5,000만원의 주인공이 밝혀진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 ‘플리마켓’이 열리며, 예천 주민 서포터즈의 ‘영화제 주제 공연’이 화려하게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영화인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축하공연으로 ‘사필성밴드’와 ‘크라잉넛’의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예천의 가을밤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 영화제는 52개국에 참여한 가운데 공식 개막작이 영화로 제작되고, 해외 영화제작사가 방문하는 등 글로벌 영화제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막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조직위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예천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 안동,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조사

65종 소득·재산·정보 연계

안동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총 13개 보장사업 대상자 52288명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정기 확인조사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20여 개 기관의 65종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기존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상·하반기 연 2회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중지)자 및 급여변경(감

소)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통해 확인조사의 취지, 중지나 변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충분한 소명과 이의신청의 기회를 준다.

특히 복지 급여가 중지되거나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지원 등을 안내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자격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신고로 인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장 중지 및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주 기자

### 봉화군, 춘양면 체육공원 개선 추진

체육기금 5억 7천만 원 확보

봉화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한 결과 '춘양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이 선정되어 체육기금 5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쉽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체육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춘양면 생활체육공원은 2008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특히 축구장의 경우 폭 41m로, 정규규격(65m~75m)에 현저히 미달해 주민 및 동호회원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봉화군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시설 개선을 준비해 주민 의견수렴, 행정절차, 실시설계 등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사업비 19억 원(기금 30%, 군비 70%)의 규모로 노후 시설 보수, 축구장 확장, 조명시설 정비 등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CHANGE & INNOVATION  
2023 연례시 운영 60주년

##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